

# 자연과 함께하는 머체왓숲길

한라산 자락에 넓게 자리잡은 제주의 숲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붓글하게 솟아오른 오름과 울창한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한다. 각박한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제주 자연과 함께하는 숲길을 만나보자.



**남한로**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490-100 ~ 남원읍 한남리 359-4(약 4.3km)

**서성로**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54-11 ~ 표선면 가시리 2706(약 17.4km)

**서성로651번길**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5 ~ 남원읍 한남리 산3(약 2.6km)

**서성로810번길**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624 ~ 남원읍 한남리 784-4(약 2.7km)

**태수로**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6-4 ~ 남원읍 수망리 961(약 7.8km)

**남조로**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9-5 ~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355-3(약 31.2km)

## 남한로 | 건강 보따리마을 한남리

남한로는 남원리에서 시작해 한남리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제주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마을들이 많지만 바다와 떨어져 있는 중산간 마을들은 제주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오름들, 그리고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울창한 숲은 갑갑한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색다른 세계로 다가온다. 남원읍에서는 한남리가 이런 경치를 보여주는 마을 중 하나이다.

한남리(漢南里)는 고려시대에는 석곡리라는 이름이었다고 하고, 부등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도 한다. 지금은 한라산 남쪽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한남리라고 부른다. 제주의 중산간마을 중에는 4·3사건 때 사라진 마을이 다수 있는데 한남리 역시 4·3사건 때 마을 사람들이 주변 마을에 이주해서 살아야 했다. 4·3사건의 화마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마을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마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한남리는 숲길과 오름 등의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 보따리마을이라는 테마로 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 서성로/서성로651번길 | 머채왓숲길

한남리의 북쪽을 지나는 서성로는 서귀포에서 성산까지 이어지는 길의 서쪽도로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서성로에는 머채왓숲길을 안내하는 방문객지원센터가 있다. 머채왓이란 이름은 제주어로 '돌로 이루어진 밭'이라는 뜻이다. 이 일대의 밭에 돌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머채왓숲길은 2012년에 '우리마을 녹색길'로 조성된 도보체험코스로 야생화 숲길, 돌담쉼터, 머채왓 전망대, 산림욕 숲길, 목장길, 머채왓 집터, 서중천 숲터널을 지난다. 제주의 숲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머채왓숲길에도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머채왓숲길 방문객지원센터

한남리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숲길은 사려니숲길이다. '사려니'라는 이름은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려니오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사려니숲길은 교래리의 비자림로에서 시작해 한남리의 서성로까지 이어지지만 중간 지점인 월든에서 사려니오름까지의 숲길은 통제되어 있다. 그래서 사려니오름에 오르려면 서성로와 이어진 서성로651

변길을 따라서 이어진 사려니오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가태풍센터

### 서성로810번길 | 국가태풍센터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는 태평양에서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이면 가장 먼저 태풍을 맞는다. 그나마 제주는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이고, 물이 잘 스며드는 성질을 가진 땅이어서 물이 넘쳐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지만, 바람에 의한 피해는 막기가 힘들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면 이동 경로를 파악해서 미리 대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성로810번길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태풍의 감시와 이동경로 예측, 연구 등의 역할을 하는 국가태풍센터가 설치되어 우리나라 안전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 태수로/남조로 | 람사르습지 물영아리

태수는 태흥리와 수망리를 잇는 길로 각 마을 이름의 한 글자씩 따서 태수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남리 옆에 있는 수망리(水望里)는 남원읍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중산간마을이다. 수망리는 옛날에는 ‘물우라’로 불리다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수망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망리의 뜻을 ‘물보라’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태수로와 나란히 이어진 남조로는 수망리를 바닷가 마을과 이어준다. 제주시의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도로인 남조로는 수망리를 거쳐 남원리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를 지난다. 정상에 화구호를 갖고 있어 물영아리라고 불렀던 이 오름에는 환경부에서 멸종위기라고 지정한 물장군과 맹꽂이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오름에 신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선이 화가나면 오름 주변이 안개로 뒤덮이고, 천둥번개와 폭우가 쏟아진다는 전설이 전한다.